

# 2000년 이후 독도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박 병섭

---

## 목 차

---

서론

제1장 ‘마쓰시마(독도)도해면허’에 대한 해석

제2장 안용복사건과 도해금지령에 대한 논쟁

제3장 『인슈시청합기』와 『동국문헌비고』에 관한 논란

제4장 덴포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과 에도막부의 인식

제5장 태정관 지령서에 관한 논란

제6장 1900년 칙령41호와 석도

제7장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 편입

제8장 독도 어업과 평화선

결론

---

## 서론

일본에서 2005년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자 갑자기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독도에 관한 논문이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연구 논문의 수는 한국에 비해 아주 적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역사에 관한 논문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역사 연구자들은 ‘다케시마의 날’ 후에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왔다. 이 때문에 논문의 질은 높으며 주목될 논문도 많다. 그런데 연구자들의 논쟁은 때로는 비판을 넘어 맹렬한 비난까지 벌인다.

---

\* 본고는 2013년 10월 18일에 개최된 “2013년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에 가필했음.

예를 들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의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 연구가 시마네현(島根県)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조사 연구에 장애가 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를 다케시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곡학아세(曲學阿世)”라고 모욕했다.(下條正男 2005:21) 이런 인격 공격까지 하는 시모조는 대저 연구자로서 의문시된다. 시모조는 자기 견해를 아무 설명도 없이 자주 바꾸고 있으며 정견이 없다. 시모조를 제외하고도 일본에서 독도 관련 논문은 엄한 검증이나 비판을 받게 된다. 그런 비판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가 발전돼 왔다. 그 성과는 현대송 『영토 내셔널리즘의 탄생(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2006), 혹은 김학준 『독도연구(獨島研究)』(2012) 등에 의해 소개되고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 연구자의 연구 내용이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최근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소개했다고는 볼 수 없다. 본고는 일본에서 이슈화된 제목을 중심으로 심도 깊게 일본 학계의 독도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인데, 일본에서 1905년 이전에 독도는 마쓰시마(松島), 리양코루토, 리양코 등으로, 울릉도는 다케시마, 마쓰시마 등으로 문헌에 등장하니, 본고에서는 문헌에 나오는 그때그때의 섬 이름을 사용한다. 단, 혼란을 막기 위해 적당히 괄호 안에 현재 지명을 넣었다.

## 제1장 ‘마쓰시마(독도)도해면허’에 대한 해석

일본 호키국 요나고(伯耆国米子)의 상인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 가문은 돗토리번(鳥取藩)을 통해 에도막부(江戸幕府)로부터 한 번만의 다케시마(울릉도)도해면허를 1625년경에 얻어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1650년대에 마쓰시마(독도)에서도 강치 잡이를 시작했는데,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때에 그들은 에도막부로부터 ‘마쓰시마도해면허’도 얻어, 에도막부의 공인 아래 마쓰시마도 경영했다고 주장했다.(川上健三 1966:73) 도해면허의 근거는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을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阿部四郎五郎)가 막부의 어느 로쥬(老中)로부터 ‘마쓰시마 도해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는 관련 서함이다. 이 도해

면허 설을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지지하고,(堀和生 1987:101) 일본의무성은 「일본정부건해 3」(日本政府 1956)에서 독도 영유권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그러나 일본의무성은 최근에는 마쓰시마 도해면허에 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 배경에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1994: 1) 이케우치 등이 도해면허장은 발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이케우치에 따르면 가와카미가 도해면허의 근거로 삼은 ‘로주의 양해’ 등은 도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라카와가 단독으로 선행하고 있었던 마쓰시마 도해 사업을 쇠신하고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에 의한 도해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결코 새로운 도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池内敏 1999:38, 2012b:47) 단 ‘사업의 조정’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다.

이 ‘사업의 조정’의 내용을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본래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업은 장애가 많았다. 가와카미는 왜 오랫동안 마쓰시마에서 어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시했는데,(川上健三 1966:79) 그 이유는 많은 장애 때문이다. 마쓰시마 주변에는 암초가 많으니 큰 배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날씨가 악화되면 배를 해안에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큰 배는 어렵다. 또한, 마쓰시마에는 식수 및 땀감이 거의 없으니 오래 머물 수 없고, 강치나 전복을 가공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이런 장애 때문에 마쓰시마에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강치 잡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케시마에서 강치가 점점 줄어, 1650년대에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드디어 무라카와는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을 시도하게 됐다. 무라카와는 그들의 도해 순번이었던 1657년에 마쓰시마로 갔는데, 큰 배로 갔던지 배가 파손해 큰 손해를 입었다. 마쓰시마에는 작은 80석(12톤)짜리 정도의 배로 조심해 가야 된다. 이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다케시마로의 도항은 보통 200석(30톤)짜리 큰 배 2척으로 가는데, 1척을 작은 80석짜리 배로 바꾼다면 가져올 수 있는 어획량이 준다. 그래도 지속적인 강치 잡이를 하려면 기어이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한다면 어획량이 줄어 손해를 보니, 무라카와는 오야도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하도록 제의했다. 그러나 오야는 수입이 주는 마쓰시마 어업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라카와는 아베 시로고로에 오야의 설득을 부탁했다. 드디어 아베의 설

득이 성공해 오야도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하게 됐다. 이런 교섭이 ‘사업의 조정’의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해 보았더니, 사료에 의하면 강치 잡이는 “조금씩” 밖에 할 수 없었다. 마쓰시마에서의 어로 조건이 나쁜 탓이다. 또한 마쓰시마 어업은 기본적으로 강치 잡이뿐이며 전복 따기는 안용복 사건 때의 예외를 제외하면 없었다. 전복은 다케시마에서 충분히 딸 수 있었으니, 여러 조건이 나쁜 마쓰시마에서 아예 전복을 딸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朴炳涉 2012:25-26)

이처럼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업은 다케시마(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작은 배로 가서 오로지 강치 잡이만을 조금씩 했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은 경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었다.(朴炳涉 2012:26) 어민들도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sup>1)</sup> 등 다케시마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문헌에 기록됐다.(堀和生 1987:101) 그런데 데라사와 겐이치(寺沢元一)는 “우리나라는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魚採地)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라고 주장했으며,(寺沢元一 2009:33) 이 주장이 그대로 일본외무성의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10 포인트』로 약칭)의 내용으로 됐다. 이에 대해 나이토는 “막부가 마쓰시마를 알게 된 것은 후술하는 1696년의 돗토리번에 대한 질문과 회답 속에서도였다. 따라서 그 이전인 ‘17세기 중반 시기에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비판했다.(内藤正中 2008:27)

## 제2장 안용복사건과 도해금지령에 대한 논쟁

### 1. 울릉도쟁계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안용복 등은 1693(숙종 19)년에 울릉도에 어로로 갔다가 일본 호키국 오야 가문에 의해 일본으로 피랍됐다. 안용복은 일본 각지에서 조사를 받아 송환됐다. 귀국 후 안용복은 동래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의 진술 기록은 아주 적다.

1) 원문은 “竹島近所之小島”, “竹島之内松島”.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안용복의 진술이 의문시됐기 때문이다.

안용복 피랍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과 쓰시마번(對馬藩) 사이에서 울릉도(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 ‘울릉도쟁계’, 일본에서 이르는 ‘겐로쿠 다케시마일건(元祿竹島一件)’이 시작됐다. 이 교섭 과정을 가와카미가 밝혔지만 연구는 부분적이며, 전체적인 균형을 잃은 것이었다. 종합적인 연구는 이케우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쓰시마번 등의 대응이 잘 해명됐다.(池内敏 2001b) 그런데 ‘다케시마일건’ 교섭에서 마쓰시마(독도)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돗토리번 등을 통해 마쓰시마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의 영토가 아님을 알았다. 막부는 그런 대답을 바탕으로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뜻을 1695년 12월에 쓰시마번에 전했다. 또한 막부는 돗토리번 대답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지고 더 자세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1696년 1월에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회답하고,<sup>2)</sup> 마쓰시마까지의 노정 등을 설명했다. 이 기록 중의 ‘어느 나라’를 가와카미는 “이나바(因藩)국과 호키국” 즉 돗토리번으로 해석했다.(川上健三 1966:85) 이 경우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니더라도 일본의 다른 나라(번)에 속하는 가능성이 있다. ‘어느 나라’에 대해 이케우치는 한때는 “마쓰시마(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해석했지만,(池内敏 2009b: 192) 최근에 주장을 바꾸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어느 나라’를 ‘이나바·호키’ 두 나라로 해석해, “마쓰시마는 이나바·호키 어느 나라에 부속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池内敏 2012b:27) 한편, 쓰카모토는 돗토리번이 자기 영토의 소속에 관해 “듣고 있습니다”라고 전문한 것처럼 막부에 대답할 리가 없으니 ‘어느 나라’는 ‘일본의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塚本孝 1984:87) 박병섭도 이를 지지했다.(内藤正中·朴炳涉 2007:35) 그런데 쓰카모토는 최근에 견해를 바꾸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어느 나라’를 “[인파쿠(因伯)] 어느 나라” 즉 이나바국과 호키국으로 해석했다.(塚本孝 2013:43) 한편,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가와카미의 견해를 비판해, ‘어느 나라’를 ‘일본의 어느 나라’라고 해석했다.(竹内猛 2010:45) 그 이유는 쓰카모토의 첫째 견해와 같다.

결국,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돗토리번 회답서

2) 『竹島之書附』의 원문은 “松嶋は何連之国江付候嶋に而茂無御座候由承候”.

를 받은 3일 후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도해금지령은 마쓰시마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를 근거로 데라사와(寺沢元一 2009:34) 및 일본의 무성 『10 포인트』는 “다케시마(독도, 주)로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부터 우리나라가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이토는 “다케시마 도해 도중에만 들르는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반박했다.(内藤正中 2008:32) 또한 이케우치도 에도막부는 “마쓰시마(다케시마)가 자국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금지할 수 없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池内敏 2012b:30) 나이토 및 이케우치는 결코 일본은 17세기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섭은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인식됐으니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면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된 것이며, 또한 막부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인식했을 것이니, 그런 곳은 당연히 도해가 금지된다고 주장했다.(朴炳涉 2012:26-27)

## 2. 안용복사건에 대한 논쟁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안용복의 진술 내용을 의문시켰다. 데라사와 및 일본 외무성 『10 포인트』는 안용복의 진술에 대해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 측에 의해 다케시마 영유권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寺沢元一 2009:37) 문제가 된 안용복의 첫째 진술은 피랍사건에 관한 것이다. 『숙종실록』(1696.9.25)에 따르면, 그는 1693년에 피랍됐을 때 일본에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는 관백(關白)의 서계를 받았는데, 대마도주에 서계를 빼앗겼다고 한다. 이 진술에 대해 데라사와는 “한국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 준 기록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寺沢元一 2009:37) 일본외무성 『10 포인트』도 똑같다. 그들이 말하는 ‘한국 측’은 누구를 가리킬지 모르지만, 적어도 외무부는 그런 주장을 「한국정부견해 2」(한국정부 1954) 등에서 하지 않았다. 박병섭에 의하면 데라사와 등의 주장은 조선 역사서의 오독이다. 『숙종실록』(1696.10.23)에 따르면, 1694년에 접위관으로서 안용복을 추문한 승지 유집일은 1696년에 임금이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한 자리에서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호기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

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꽤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에는 울릉도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시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하여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시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던 것이다. 이처럼 조정은 안용복 진술의 진위를 잘 가리고 있었으며, 그가 말한 영토 서계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데라사와 및 일본 외무성은 이 기록을 무시 혹은 간과하고, 마침 조선 사서가 안용복의 진술을 그냥 믿었던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숙종실록』의 오독이다.(朴炳涉 2009b:13-14, 2007:34)

다음으로 문제가 된 안용복의 진술은 1696년의 안용복 도일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케우치는 한국에서는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 진술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안용복은 독도를 지킨 영웅’이라는 인식이 1960년에 일어나고, 1979년부터는 교과서에 검증도 없이 기술됐다고 주장했다.(池内敏 2009a:139) 이케우치가 주목한 『숙종실록』(1696.9.25)에 있는 안용복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池内敏 2008:25)

- (a) 안용복이 1696년에 울릉도로 갔더니 일본 배가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었다.
- (b)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에게 “마쓰시마는 자산도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다.
- (c) 일본인이 도망치자 안용복 등은 뒤쫓아 오키도에 이르렀다.
- (d) 예전에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자산도를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는 관백(關白)”의 서계까지 받았다.
- (e) 안용복은 돛토리번에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監稅將)”을 자칭했다.
- (f) 안용복은 철릭을 입고 검은 포랍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말을 타고 돛토리 성하(城下)로 갔다.
- (g) 돛토리 번청(藩庁)에서 안용복은 번주(藩主)와 마주 앉았다.
- (h) 대마도주의 아버가 돛토리번주에 다음과 같이 간청했다. 이런 소장이 제출되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다. 부디 제출하지 말기 바란다.

이케우치는 이 중에서 사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e)감세장에 관한 진술뿐이

며, 이 외의 진술은 있을 수 없거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용복 진술의 진위인데, (d)에 관해서는 앞에 쓴 것처럼 조정에서는 안용복은 피랍사건 때에 서계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며, 이는 안용복의 허언이다. (e)감세장에 관해서는 『이나바시(因幡志)』등을 근거로 모든 연구자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f)안용복의 행보인데 이케우치는 『숙종실록』에 안용복 등은 “본주(本州)로 갔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돗토리 성하(城下)로 갔다.”라고 해석하고, 실은 안용복 등은 돗토리 성하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용복이 돗토리 성하로 들어갔다고 쓴 사료는 『다케시마고(竹島考)』, 『인푸연표(因府年表)』 등이며, 이케우치는 이런 사료를 『숙종실록』과 혼동했다. 이런 일본의 사료를 바탕으로 가와카미, (川上健三 1966:173) 시모조, (下條正男 2004:75) 나이토(内藤正中 2005:13) 등은 안용복 일행이 가마 혹은 말을 타고 돗토리 성하로 들어갔다고 보고, 이 행보에 관한 안용복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g) 돗토리 번주와의 면담에 대해 김병렬은 번주가 돗토리에 귀국한 7월 19일부터 안용복이 떠나는 8월 19일 사이에 안용복은 번주 혹은 중역(重役)과 만났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근거는 거의 없다.(内藤正中·金柄烈 2007:157)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일은 안용복의 허언이라고 보고 있다. (h) 대마도주의 아버의 간청 문제에 대해 송병기는 간청한 자는 대마도주의 아버가 아니라 쓰시마변으로부터 에도에 급파된 사자이며, 이 사자가 돗토리번 증신에 간청했다고 추정했다.(宋炳基 2009:73) 그러나 근거가 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일도 안용복의 허언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문제는 (a), (b), (c), 즉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났는지의 여부이며, 일찍이 한·일 정부 간의 논쟁으로 된 문제다. 이에 대해 가와카미는 “명백한 허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이어받아 시모조는 “안용복이 돗토리번으로 밀항하는 4개월 전인 1696(元祿 9)년 1월 28일에 이미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울릉도에서 돗토리번 어민들과 조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4:75) 이에 대해 김병렬은 “금지령이 돗토리번으로 전달되고 오야·무라카와 두 가문이 청서(請書)를 제출한 것은 8월 1일이었다. 따라서 금지령 때문에 1696년에 일본인은 한 사람도 울릉도로 도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은 성립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内藤正中·金柄烈 2007:151) 한편 이케



우치는 오야·무라카와 양가문의 배가 1696년에 도해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며, 또한 만약 안용복이 이 해에 일본인을 쫓아 오키도로 갔다면 무라카미가문서(村上家文書), 즉 『겐로쿠9 병자년 조선 배 착안 1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覚書)』에 반드시 그럴만한 내용이 있을 텐데, 무라카미가문서를 보면 안용복은 우연히 오키도에 왔다고 진술했으며, 울릉도의 일본인에 관해 아무 말이 없었으니,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池内敏 2008:26) 박병섭도 이 견해를 지지했지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난 때가 1696년이 아니라 1695년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 해에 일본인이 울릉도로 도해하고 조선인과 만났다는 것은 『다케시마 노 가키쓰케(竹島之書附)』에서 알 수 있는데, 이때에 안용복도 울릉도로 갔으며, 거기에서 일본인들의 침입을 보고 분노한 안용복은 다음 해에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図) 등을 마련해 도일했다고 생각된다는 가설을 세웠다.(朴炳涉 2009b:41-43, 2007:68-70) 나이토도 이 주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内藤正中 2013:37)

한편, 안용복의 도일 목적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안용복의 도일 목적에 대해 나이토(内藤正中 2005: 3) 시모조(下條正男 2007d:12) 김병렬(内藤正中·金柄烈 2007:148) 등은 무라카미가문서 등을 근거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호소하기 위한 도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 안용복이 다케시마는 울릉도, 마쓰시마는 자산(子山)이며, 이들은 강원도에 소속된 섬이라고 주장했다고 기록된 것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견해에 이케우치가 이의를 제시했다. 이케우치는 (a) 돛토리번 유학자 쓰지 반안(辻晩庵)이 안용복 등과 필담을 했으니, 예상 밖으로 “그다지 다케시마 소송 같지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한다, (b)에도의 돛토리 번저(藩邸) 유수거역(留守居役)이 쓰시마번과 회담을 가졌을 때, 안용복은 전에 쓰시마번에서 줄에 묶였던 일 등 자꾸 쓰시마번의 일만 말했다고 설명한 것 등을 근거로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쓰시마번의 그에 대한 학대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며,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池内敏 2007b: 7) 이에 대해 박병섭은 (1) 오키국(隱岐国)의 관리들은 안용복 등이 오키에서 쓴 소장의 내용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케우치도 인정한 바인데, 그 관리들로부터의 서함에 대해 돛토리번은 “오키국으로부터 전해 온 것은

(조선인들이, 주) 다케시마에 관한 소송으로 왔다는 뜻을 말한 사건의 연락”이었다고 『고요닌일기(御用人日記)』(1696.6.22)에 기록하고 있다, (2) 쓰지 반안의 “그다지 다케시마 소송같이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결코 다케시마 소송의 말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다케시마에 관한 이야기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안용복이 쓰시마번의 냉대 등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중죄를 각오로 일본으로 도해한다는 것은 동기가 너무 약하다, 등을 근거로 이케우치의 견해에 이의를 제시하고, 안용복의 도일 목적은 다음 세 가지를 호소 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 (1) 쓰시마번이 에도 막부의 뜻에 어긋나서 안용복을 줄에 묶어 학대한 일.
- (2) 쓰시마번이 울릉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는 간계를 고발하려는 다케시마 소송.
- (3) 기타 쓰시마번의 여러 기만적 행위.

이런 내용을 쓴 소장(訴狀)을 안용복은 돗토리번에 제출했으며, 『고요닌일기』(1696.6.22)에 따르면 이 소장이 돗토리번으로부터 ‘조선인서기(朝鮮人書記)’의 이름으로 에도막부 로쥬(老中)에 제출됐다.(朴炳涉 2010c:8-11) 소장에 관해 나이토도 『숙종실록』,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를 바탕으로 안용복이 일본 관아에 정서(呈書)를 한 것을 밝혔다.(內藤正中 2000:107) 안용복의 소장은 확실히 에도막부에 제출됐던 것이다.

### 3. 안용복과 독도

안용복은 수차례 독도에 관련된 진술을 했다. 『변례집요』 「울릉도」조에 따르면 그는 1693년에 피랍되고 울릉도를 출발한 다음 날 저녁 식사 후에 배에서 “죽도(울릉도)에 비해 자못 큰” 섬을 보았다고 동래부에서 진술했다.<sup>3)</sup> 이 기록에 대해 시모조는 그런 ‘큰 섬’은 오키도 밖에 없으니, 안용복이 본 섬은 독도가 아니라 오키도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1996:62) 그러나 오키도는 안용복이 상륙하고 바로 조사를 받았던 섬이다. 그런 섬을 안용복이 배에서 보았다고 진술할 리가 없다. 게다가 울릉도에서 배로 하루의 거리에 있는 섬은 오키도가 아니라 독도밖에

3) 원문은 “翌日晚食後、見一島在海中、比竹島頗大云云”.

없으니, 안용복은 섬 이름은 몰랐으나 독도를 본 것이다.(朴炳涉 2009b: 7) 시모쥬의 엄청난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는 “시모쥬 마사오의 주장은 황당무계다. 안용복이 다케시마(울릉도) 및 오키제도와 구별된 섬으로서 마쓰시마(다케시마/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키 무라카미 수케쿠로(村上助九郎) 가문 문서에 의해 드러났는데, 대저 위 주장은 『변례집요』의 오독에 기인한 오류다. 이런 오류가 일어난 배경에는 안용복을 허언의 버릇이 심한 자라고 하는 평가에 지나친 집착이 있다.”라고 비판했다.(池内敏 2007b:14) 한편 쓰카모토는 “동인(안용복, 주)을 연행한 배는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들렀다. 따라서 동인은 기록상으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로 간 최초의 조선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塚本孝 1994:3) 또한, 박병섭은 일본 사료 『인푸 역년 대잡집(因府歷年大雑集)』에 안용복이 탄 배가 “새벽 마쓰시마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기록되고 있음을 밝혔다.(朴炳涉 2007: 7) 안용복이 독도에 들렀던 것이 일본 사료에서 뒷받침됐다.

안용복은 독도를 본 후 일본에서 오키도, 돗토리번, 나가사키부교쇼(長崎奉行所), 쓰시마번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쓰시마번의 『다케시마 기사(竹島紀事)』(1693.11.1)에 따르면 쓰시마번의 조사에서 안용복은 “이번에 나간 섬(울릉도, 주)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머물던 중에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의 거리라고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진술에 대해 다가와는 안용복이 멀리서 본 우산도는 독도이며, 쓰시마번이 말하는 ‘부른세미’라고 주장했다.<sup>4)</sup>(田川孝三 1953:100) 한편 시모쥬는 안용복이 본 섬은 울릉도 바로 근처에 있는 ‘죽도(죽서)’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7a: 4) 이에 대해 박병섭은 (1)시모쥬는 ‘하루의 거리’라는 증언을 무시하고, 신뢰성이 낮은 ‘방향’을 중시해 결론을 내렸지만, 해상에서 방향이 틀리기 쉬운 것은 다가와가 지적한 바이며, (2)안용복이 본 우산도는 다가와의 주장대로 독도라고 주장했다. 단 안용복은 우산도가 피랍 도중에 본 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朴炳涉 2009b:8)

그런데 무라카미가문서에 의하면 1696년에 안용복은 오키도에서 관아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에 울릉도에서 오키도쪽으로 50리(200km) 떨어진 섬은 자산도

4) 이케우치는 ‘부른세미’는 ‘무루구세무(무릉도)’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울릉도로 보았다.(池内敏 2012b:281)

이며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울릉도·자산도를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는 1693~94년에 동래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마쓰시마를 잘 아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이다. 이 사실에 대해 박병섭은 안용복이 1695년에 일본 어부와 만나 마쓰시마를 알게 됐다고 추정했다. 이처럼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로 도해했다고 가정한다면 많은 일들이 잘 설명된다.(朴炳涉 2009b:43)

### 제3장 『인슈시청합기』와 『동국문헌비고』에 관한 논란

#### 1.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의 해석

일찍이 『인슈시청합기』(1667)에 기록된 “일본의 서북은 이 주(州)를 한계로 한다” 중의 ‘이 주’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외교 논쟁이 벌어졌다. 『일본정부견해 3』(日本政府 1956)은 다가와의 주장에 따라(田川孝三 1989:42-43) ‘이 주’를 다케시마·마쓰시마로 보았지만, 『한국정부견해 3』(한국정부 1959)이 ‘이 주’는 오키도라고 주장하자 일본은 반론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가와카미, 다무라 등의 지지조차 받지 못했던 것 같으며, 그들은 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한편, 시모조는 다가와의 주장을 지지해, 일본 서북의 한계를 다케시마·마쓰시마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4:170) 이에 대해 이케우치,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2003:178, 2007:34) 다케우치(竹内猛 2010:69) 등은 ‘이 주’를 인슈로 보고, 일본 서북부의 한계는 인슈이며, 다케시마·마쓰시마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케우치는 『인슈시청합기』에 사용된 모두 66개의 ‘주’의 용법을 살펴, 문맥상 혹은 용어 용법상으로 ‘주’는 모두 다 ‘국(国)’을 의미하며, ‘이 주’는 ‘이 나라’ 즉 오키국을 가리킨다고 밝혔다.(池内敏 2005:163) 게다가 『인슈시청합기』를 바탕으로 편찬한 『오키고기집(隱岐古記集)』도 ‘이 국(国)’, 즉 오키국을 일본 서북의 한계라고 보았다는 것도 밝혔다. 또한 이케우치는 『인슈시청합기』 제2권에 “오키국은 (일본) 서북부의 극지”라고 쓰고 있다는 것도 밝혔다.(池内敏 2011:25) 한편, 박병섭은 에도시대 말기에서 메이지(明治)시대에 편찬된 역사서 『대일본사(大日本史)』도 『인슈시청합기』는 다케시

마·마쓰시마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해석했음을 밝혔다.(内藤正中·朴炳涉 2007:30) 나이토 세이쥬는 처음에는 다가와의 견해를 지지했으나, 이케우치의 면밀한 연구의 영향을 받아 ‘이 주’를 인수로 보게 됐다.(内藤正中·金柄烈 2007: 22) 한편, 이케우치의 연구에 대해 시모조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시마네현, 주)가 조사연구를 행하는데 장애가 됐다”고 비난하고,(下條正男 2007a: 4) 반론을 시도하고 있으나,(下條正男 2007c:294) 거의 설득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케우치의 견해는 거의 통설로 됐다. 단 이케우치는 『인슈시청합기』는 두 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했지만, 조선의 영토라고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다짐했다.

## 2. 『동국문헌비고』 개찬설

관찬서 『동국문헌비고』 「여지고」는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쓰고 있다.<sup>5)</sup> 이는 한국정부가 독도 영유권 근거의 하나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자료이니, 이에 시모조가 이의를 제기해 『동국문헌비고』는 개찬됐다고 주장했다. 즉 시모조는 안용복을 영용시키는 이익 『성호사설』의 기사가 검증도 없이 이맹휴 『춘관지』에 인용되고, 이것이 영성한 『동국문헌비고』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下條正男 1997:46-49) 시모조에 따르면 『춘관지』는 우산도와 울릉도를 같은 섬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동국문헌비고』에 위와 같이 울릉·우산 2도설로 개찬되고 기록됐다고 한다. 시모조는 개찬한 인물로 신경준을 지목하고, 여지지에 “일설에 울릉·우산은 본래 1도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신경준은 이를 제멋대로 우산도와 울릉도를 다른 섬으로 한 위에 안용복의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진술을 마침 『여지지』의 글처럼 개찬하고 『동국문헌비고』에 썼다고 주장했다.(下條正男 1998:33) 또한, 오상학이 『여지지』는 유형원의 『동국여지지』라고 주장하자,(오상학 2006:99) 이를 인용해 『동국여지지』에 “일설에 울릉·우산은 본래 1도다”라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8:19)

이에 대해 박병섭은 (1) 『여지지』는 유형원의 『동국여지지』와 다르다고 생각되니, 개찬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2) 가령 『여지지』가 『동국여지지』라 할지라도 『동국여지지』의 1도설은 어디까지나 ‘일설’에 지나지 않으며, 본래

5) 원문은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견해는 “두 섬은 현의 정동 바다 속에 있다”라고 쓰고 있듯이 『동국여지지』는 2도설이다, (3) 『춘관지』에 기록되고 있는 우산(于山)은 문맥상으로 신라시대의 우산, 즉 우산국을 이르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우산도(芋山島)에 관해 “용복은 (울릉도로부터 일본인을, 주) 뒤쫓아 마쓰시마(松島)에 이르러서는 <마쓰시마는 곧 우산도(芋山島)인데 너희들은 우산도도 우리나라 국경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고 욕하였다.”라고 쓰고 있으니, 『춘관지』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보고 있다, (4) 우산도를 마쓰시마라고 본 것은 신경준이 처음이 아니라 『춘관지』도 같은 견해였다. 이런 이유로 시모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朴炳涉 2008b:73, 2009a:120) 이에 대해 시모죠의 반박은 아직 없으며, 그는 여전히 똑같은 글을 되풀이하고 있다.(下條正男 2013b:24) 또한 데라사와(寺沢元一 2009:36) 및 일본의무성 『10 포인트』는 시모죠의 개찬 설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제4장 덴포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과 에도막부의 인식

1836(덴포 7)년, 에도막부의 직할지 오사카(大坂)의 지배자인 오사카마치부교(大坂町奉行)는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한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sup>6)</sup>을 잡았다. 부교가 조사했더니 하치에몬은 하마다번(浜田藩) 관리와 결탁해 울릉도 산물을 제멋대로 채취하고 밀수한 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건을 에도막부의 최고 사법 기관인 평정소(評定所)로 넘기기로 하고 하치에몬을 지사부교(寺社奉行)로 인도했다. 재판 결과, 하치에몬 등은 처형당하고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때의 재판 판결문 안에 하마다번 관리가 하치에몬에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항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교사했다고 기록됐다. 이에 대해 쓰카모토는 “이는 다케시마(울릉도)와의 대비에 있어서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가 본방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증거의 하나로 된다.”라고 주장했다.(塚本孝 1994:3, 2011a:3) 이는 가와카미, 다무라, 「일본정부견해 3」 및 「4」(日本政府 1962) 등을 이어받은 것이다. 한편, 나이토는 도해금

6) 하치에몬의 屋号는 이마즈야가 옳다고 한다.(森須和男 2002:13)

지령은 운반선 등이 외국 배를 만나지 않도록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을 조심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으니, 이는 당연히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됐다고 주장했다.(内藤正中 2008:33) 이케우치는 하치에몬이 문초를 받았을 때에 하마다번 관리가 교사한 것처럼 변명했을 터인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것은 그런 교사가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니,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池内敏 2007a:132) 또한, 이케우치는 에도막부는 쓰시마번의 회답서를 통해 ‘겐로쿠 다케시마일건’ 때부터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됐다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도막부는 하치에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시마번을 불러 다케시마·마쓰시마에 관해 “두 섬은 모두 조선의 울릉도인가?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조선 땅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1) 다케시마는 강원도의 울릉도이며, (2) ‘겐로쿠 다케시마일건’ 때에 쓰시마번이 막부의 질문에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고, 그 곳에서도 어로를 했다는 것이 아래 것들의 풍설입니다”라고 대답한 것, (3) 마쓰시마도 다케시마와 같이 일본인의 출어가 금지됐다고 생각되지만 단정하는 것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등 회답했다. 이케우치는 “이런 쓰시마번의 인식이 막부의 의사에 반영돼 세상에 유포하게 됐을 것이다.”(池内敏 2001a:30)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섭은 에도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자료를 밝혔다.(朴炳涉 2012:28-30) 즉 하치에몬의 진술 기록 『다케시마 도해 일건기(竹島渡海一件記)』<sup>7)</sup>에 첨부된 지도 「다케시마 방각도(竹島方角図)」<sup>8)</sup> 및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림지도 <그림 1>이다. 이들 그림지도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색칠돼 있다. 이 그림지도들을 보면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림지도의 작성자인데 「다케시마 방각도」는 그림지도 속에 “진술과 대조해 시험적으로 지도를 그렸다.”라고 쓰고 있으니, 하치에몬을 처음에 문초한 막부 기관, 즉 오사카마치부교가 작성한 것이다. 한편, <그림 1>은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島渡航始末記)』<sup>9)</sup>에 부속된 그

7) 도쿄대학 종합도서관 소장. 번각문은 森須和男(2002, 자료 3-9쪽).

8) 이 자료를 발굴한 모리수 가즈오(森須和男)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색깔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森須和男 1996 및 2002).

9) 島根県浜田市立図書館 소장. 번각문은 島根県(1967, 328-335).

림지도다. 이 그림지도의 작성자를 박병섭은 지사부교 혹은 이를 지휘한 평정소로 보았다. 평정소는 로쥬를 책임자로 하는 막부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이처럼 에도막부의 핵심 기관이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보고 그림지도를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朴炳涉 2012:28-30)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

〈그림 1〉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에 부착된 그림지도



## 제5장 태정관 지령서에 관한 논란

1877(메이지 10)년에 일본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내무성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대해 내무성의 판단 대로 ‘다케시마 외 1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서를 발굴한 호리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1도’는 마쓰시마, 즉 독도라고 밝혔다.(堀和生 1987:103) 이 논문이 발표된 후, ‘외 1도’가 마쓰시마=독도임은 쓰카모토,(塚本孝 1994: 5) 나이토(内藤正中 2000:131) 등의 지지를 받아 오랫동안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이 해석에 대해 시모조가 이의를 제기했다. 시모조는 ‘다케시마 외 1도’의 비정에 대해 2004년에는 ‘외 1도’는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 주)를 말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썼는데,(下條正男 2004:123) 2005~2006년에는 일변해 “외 일도는 당시의 마쓰시마, 현재의 다케시마(독도, 주)를 말한다고 생각된다.”라고 인정했다.<sup>10)</sup> 그런데 2007년 3월에는 다시 주장을 바꾸어, 시마네현(島根県)은 ‘외 1도’를 독도로 생각했으나 “태정관이 관계없다고 한 다케시마 외 1도는 두 개의 울릉도”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7a: 2)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시모조는 다시 견해를 바꾸어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도 울릉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7b:103) 게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견해를 변경해, ‘다케시마 외 1도’는 “알고너트(竹島)와 울릉도(松島)”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13a:29) 그는 ‘외 1도’가 독도임을 일단은 인정했지만, 그 결과의 중대성 때문인지 주장을 바꾸고, 새 모순이 일어날 때마다 변설을 거듭했다. 이처럼 주장을 거의 설명도 없이 네 번이나 바꾼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며, 연구자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朴炳涉 2008b:89-91, 2009a: 107-111)

시모조 외에도 최근에는 ‘외 일도’를 울릉도로 보는 견해가 일본에서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는 태정관 지령으로부터 4년 후인 1881(메이지 14)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에 관한 질의」를 인용해 “메이지 10년에 ‘다케시마 외 1도’라고 썼던 때부터 마

10) 『山陰中央新報』, 2005.8.24, 「発信 竹島 11」. 또한 시모조는 朝日TV 「ニュースター, ニュースの深層, 竹島問題 現状と今後の課題」(2006.5.15)에서도 같은 취지를 말했다.

쓰시마는 울릉도라고 메이지 정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썼으며,(杉原隆 2010:23)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도 같은 울릉도 1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는 일본어에서 ‘다케시마 외 1도’라는 것은 다케시마와 이 외의 1도, 즉 2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며, 스기하라의 주장은 “사료 해석 문제 이전의 일본어 능력(이해력)이 문제가 되는 해석”, “메이지 9년의 상신서(시마네현 질의서, 주)에 대해 본인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竹内猛 2011:43) 게다가 다케우치는 시마네현 질의서는 내무성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부속 문서로써 첨부됐는데, 그 속의 “원유의 대략(原由の大略)”에 ‘외 1도’는 “다음에 1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회 30정(3.3km, 주), 다케시마와 같은 선로(線路)에 있다. 오키(隠岐)에서 80리(320km, 주)”라고 기술되고 있으며, 더구나 마쓰시마가 독도임이 분명한 지도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図)」까지 첨부됐으니 ‘외 1도’가 마쓰시마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며, 스기하라의 “1도설 같은 해석이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竹内猛 2011:43) 이소타케시마는 다케시마(울릉도)를 말한다. 「이소타케시마 약도」는 반월성(半月城)이 자료 발굴자인 우루시자키 히데유키(漆崎英之)의 자료 제공을 받아 2006년에 처음으로 공개했다.(半月城 2006:206) 또한 이 지도 「이소타케시마 약도」를 포함한 내무성 질의서 등 관계 자료의 영인과 역주가 2007년에 공개됐다.(内藤正中·朴炳涉 2007:313-325)

한편, 쓰카모토는 1994~1996년에는 호리의 논문에 찬성해 ‘외 1도’ 즉 마쓰시마(독도)도 일본과 관계없는 섬이 됐다고 주장했다.(塚本孝 1994:4, 1996:5) 그러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마쓰시마는 시마네현으로부터의 질의서에서는 에도시대의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를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쓴 다음에 중앙 정부 레벨에서는 대상을 “다케시마(울릉도) 및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가 아니라 “다케시마라고도 마쓰시마라고도 불리는 섬(울릉도)으로 인식해, 당해 대상에 관해 우리나라와 관계없다고 판단을 내린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塚本孝 2011a:58, 2011b: 5) 쓰카모토의 논거는 후년의 자료인 태정관 유달(諭達, 1883)이나 앞의 「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에 관한 질의」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태정관 지령 이전의 내무성 인식에 대한 분석은 없다. 쓰카모토 논문에 대해 나이토는 “후년의 자료를 가지고 앞의 안건에 적용하는 역사학의 상식에 반한 견

해라고 말할 수 있다. 1877년의 시점에서는 질의서를 제출한 시마네현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었으며, 접수한 내무성에서도 다케시마를 예전의 명칭으로 인식해, 마쓰시마를 ‘외 1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内藤正中 2011:11) ‘외 1도’가 독도인 근거로 앞의 ‘원유의 대략’ 및 「이소타케시마 약도」를 들었다. 또한 이케우치는 태정관 관련 문서를 분석한 다음에 쓰카모토 등을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池内敏 2012b:149)

스기하라의 견해 및 쓰카모토의 견해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1도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에 의도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도중 생략) 메이지 10년의 일본정부 중앙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는 일본의 관도 외라고 공식 문서로 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 보아 일본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역사적 사실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사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본래 존재하지 않는 도명(島名) 혼란의 영향이라는 것을 밖에서 가져와서 모순이 많은 주장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쓰카모토는 ‘외 1도’가 울릉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塚本孝 2013:48-54) 이런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내무성 및 태정관이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 분석을 박병섭이 시도했다.(朴炳涉 2008a:33-36) 즉, 내무성 혹은 태정관이 작성한 자료에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覚書)』,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가 있으며, 이들은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를 일본영토 밖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자료와 내무성 혹은 태정관과의 관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 제6장 1900년 칙령41호와 석도

1900년 10월에 대한제국은 칙령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죽도(죽서), 석도(石島)로 정했다. 이 칙령의 중요성을 시모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下條正男 2005:98)

만약 그 석도가 한국 측 주장대로 다케시마(독도, 주)라면, 다케시마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는 한국 영토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된다.

이처럼 석도의 비정은 중요하니 오래 전부터 널리 관심을 끌어왔다. 한국인 연구자를 비롯해 일본인 연구자도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1978:23) 나이토,(内藤正中 2000:177) 오니시,(大西俊輝 2003:72) 쓰카모토(塚本孝 2000:89) 등이 석도는 독도라고 보았다. 단, 쓰카모토는 석도가 독도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더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塚本孝 2011a:63) 이케우치는 한국인이 1900년 이전에 독도를 활용한 기록이 보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현지(울릉도, 주) 측에 다케시마/독도를 ‘독섬’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없으니, 칙령41호에 보이는 ‘석도’가 현지의 용어를 고려한 독도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池内敏 2010: 8) 그러나 김수희가 전라도 거문도 사람 김윤삼이 1895년경부터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하고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렀다고 증언하는 새 자료 『민국일보』(1962.3.19) 기사를 제시하자,(김수희 2011:190) 이케우치는 “1895년경에는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러 있었던 가능성을 드러내는 문헌자료의 발굴은 대한제국 칙령41호 제2조에 이르는 석도와 독도가 일치하는 가능성에 이어지기는 한다.”라고 견해를 수정했다.(池内敏 2012a:434) 그러나 이케우치는 석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자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석도가 다케시마/독도와 일치하는 것의 논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池内敏 2012a:423)

한편,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는 울릉도 현지를 조사한 결과 “석도는 관음도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船杉力修 2007:131) 그러나 후나스기는 처음부터 독도를 검토 대상 외로 하고 있으니, 논증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시모조는 자기 견해를 두 번이나 바꾸었는데,(朴炳涉 2009a:100) 최근에는 『한국수산지(韓国水産誌)』 부속 지도를 인용해, 서항도(鼠項島, 관음도)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ソコウト)’가 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下條正男 2008:30)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일본 해군 수로부 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항도는 ‘도항(島項)’의 훈독과 같이 ‘섬목’섬이라고 불렀으

니 시모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다고 지적했다.(朴炳涉 2009c:212, 2010b:45)

이처럼 석도는 독도 외의 섬으로 비정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데라사와(寺沢元一 2009:37) 및 일본외무성 『10 포인트』는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한국 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의문을 이케우치, 쓰카모토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a) 우산도를 이규원 등 관원 및 울릉도 주민들이 탐색했으나 실패한 결과, 우산도는 현지에서 존재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됐다. 그런 섬은 칙령에 쓸 수 없었다. (b) 『조선수로지』(1907)에 한자로 石島라고 표기된 조선 각지의 섬들의 호칭은 일본어 표기로 ‘トルソム(도루소무)’, ‘トリソム(도리소무)’, ‘トクソム(도토쿠소무)’ 등인데, 이들은 ‘돌섬(표준어)’, ‘독섬(전라도 사투리) 등에 유래하며 ‘돌의 섬’을 의미한다. (c) 독도의 호칭 및 표기의 기록을 보면 1925년 경에 “独島(トクソン)”, 1947~48년에 “독섬(獨島)”, 1948년에 “Docksum”, “돌섬” 등이었다. ‘トクソン’은 ‘독섬’의 일본어 표기다. 이처럼 독도의 1950년 이전의 호칭은 주로 독섬이며, 돌섬이라는 호칭도 사용됐다. (d) 칙령41호에 한자로 표기된 石島는 주로 독섬, 때로는 돌섬이라고 호칭되고, 이 중에서 ‘독섬’의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했으며, ‘獨島’ 표기는 군함 니타카(新高) 『행동일지』(1904), 『심홍택보고서』(1906), 『지학잡지』(1906) 등에 기록됐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울릉도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는데, 이와 별도로 독섬(돌섬)을 어업이나 표류를 통해 알게 되고, 독섬이 칙령41호에 한자로 石島로 표기됐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자 ‘石島’를 독섬이라고 읽을 수 없으니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했던 것이다. (朴炳涉 2009c:218-222, 2010b:51-54)

## 제7장 러일전쟁과 일본의 독도 편입

1904년 러일전쟁 와중에 일본 어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리양코도(독도)의 강치 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리양코도 영토편입 및 임대 청

원서」를 제출했다. 호리의 연구에 따르면 내무성은 이에 반대했으나,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가 러일전쟁이라는 시국에 있어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나카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堀和生 1987:117)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러일전쟁의 시국을 호리 가즈오는 “1904년 6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조선해협에 출현해 일본의 수송선을 차례로 격침시키면서부터 이 해역의 긴장이 일거에 높아졌다.”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일본 수송선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문형,(崔文衡 2005:195) 김병렬(金柄烈 2006:122) 등이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6월 16일에 이즈미마루(和泉丸), 히타치마루(常陸丸), 사도마루(佐渡丸)를 격침시켰다고 간단히 밝혔다. 보다 자세한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7차에 걸친 공격과 일본의 피해, 대책 등은 박병섭이 밝혔다.(朴炳涉 2013: 41-49) 이에 따르면 일본해군은 당초 여순(旅順)공격에 주력해 일본본토의 방어에 신경을 그리 쓰지 않았다. 4월에 강원도 원산에서 일본해군 수송선 긴슈마루(金州丸) 등이 블라디보스톡 함대에 의해 격침되자 동해의 적함 감시 태세를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이 일환으로 일본해군은 울릉도·독도 망루를 계획했지만 건설되기 전에 위와 같이 히타치마루 등이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다. 뒤늦게 일본해군은 9월에 울릉도 두 곳에 망루를 건설하고 11월에 독도 망루의 건설 가능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호리 가즈오는 망루의 건설·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으나,(堀和生 1987:115) 박병섭은 해군은 망루 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밝혔다. 이 때문에 러일전쟁의 승패를 가릴 중대한 발틱함대와의 해전을 앞두고도 독도 망루는 건설되지 않았다. 독도에 망루가 건설되고 운용을 개시한 것은 발틱함대와의 해전이 끝난 후인 1905년 8월이었다. 해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망루가 설치된 것은 그만큼 해군이 독도의 군사적 인가치를 중시한 것이다. 실제로 발틱함대가 마지막으로 항복한 곳이 바로 독도 해역이었다. 이 중요성 때문에 독도에도 해저 전선이 부설됐다. 그러나 전선의 유지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당장은 독도 망루에 연결하지 않고, 유사시에 연결하는 태세만 갖추었다.(朴炳涉 2013:55)

이처럼 독도는 전략적인 가치가 높았다. 이 때문에 일본정부는 한국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독도를 1905년에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일본 영토로 편입해 시마네현의 관할로 했다. 이는 관보에도 공표되지 않았으며, 비밀리에 처리됐다. 물

론 한국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독도를 탈취했다. 이 영토 편입을 지방 신문 『산인신문(山陰新聞)』이 “오키의 새 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을 뿐이었으니 ‘다케시마’의 이름은 거의 주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심지어는 발틱함대에 승리한 것을 알리는 『관보』(1905.5.29-30) 조차 한때 ‘다케시마’ 이름을 쓰지 않고 ‘리양코루도암’ 이름을 썼다. 또한 울릉도를 주시하고 있었던 부산의 일본영사관도 새 ‘다케시마’ 이름을 몰랐으며, 여전히 ‘랑코도’라는 이름을 쓰고 울릉도 주민들의 랑코도(독도)에서의 강치 잡이를 외무성에 보고했다. 랑코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처럼 보았던 것이다. 더구나 이 보고서는 외무성 『통상회찬(通商彙纂)』 50호(1905)에 전재되고, 더욱이 『관보』(1905.9.18)에까지 전재됐음을 박병섭이 밝혔다.(朴炳涉 2010b:41) 『관보』는 정부의 공식 견해를 주시시키는 간행물이다. 일본 정부마저 랑코도를 ‘울릉도민’이 경제활동을 할 만한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보고 『관보』에 반포해, 이 인식이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가 됐다. 이는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해 영토 편입한 내각회의의 결정이 마땅치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朴炳涉 2010b:60)

## 제8장 독도 어업과 평화선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관건은 어업에 있다고 생각해, 일본 관리들이 열심히 독도 어업을 연구했다.(速水保孝 1953, 田村清三郎 1996, 川上健三 1966) 이들의 연구는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니, 일본에 불리한 자료는 무시한다든지 혹은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그들의 연구는 철저히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박병섭이 이들의 연구를 재검토했다. 이 중에서 한말 및 일제시대의 어업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한말에 일본인의 독도 어업은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1899년부터 상어잡이, 전복 따기 등이 시작됐다. 이런 어획물은 울릉도에서 가공되고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때에 울릉도도감의 화물을 실은 배에 관원을 파견해 수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 1903년부터는 독도에서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의 강치 잡이가 시작되고, 1904년에는 과당 경쟁이 벌어졌다. 이 중에는 아마구치현(山口県) 어민

들과 한국 어민들 40~50명이 공동으로 울릉도에서 출어해 강치를 잡았다. 과당 경쟁에 인한 강치 남획을 우려한 나카이 요자부로는 강치 잡이를 독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리양코도 영토 편입 및 임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것이 일본의 영토 편입의 계기가 되고, 독도는 시마네현 관할로 됐다. 강치 잡이 허가는 나카이의 독점이 아니라 4명의 공동 면허로 됐다. 나카이 등은 1905년 6월에 ‘다케시마 어업합자회사(竹島漁獵合資會社)’를 설립해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회사는 강치를 매년 수 천 마리 남획했으니 곧 강치는 쇠퇴해, 1912년부터 회사는 강치 잡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朴炳涉 2009c, 2010a, 2010b) 그 후 1916년에 나카이 요자부로의 아들 나카이 요이치(養一)가 회사를 이어받아 강치 잡이를 재개하고 매년 강치를 수 백 마리 잡았다. 그러나 회사 경영은 여전히 부진해 1923년에 나카이는 강치 잡이를 포기했다. 1933년부터는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가 강치 잡이를 재개해, 매년 수 십 마리 생포해 동물원 등에 팔았다. 하시오카는 독도에서 전복도 됐다. 그러나 하시오카는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해변의 권리’라고 칭하는 것을 1938년에 불법으로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 오쿠무라 헤이타로(奥村平太郎)에 팔아 전복 따기를 중지했다. 이로서 울릉도 주민의 독도 어업의 길이 열렸다. 1944년에는 오쿠무라가 전쟁에 징용되자, 그에 고용된 조선인이 전복 따기를 계승했다. 이 때에 일본인의 독도 어업은 끝났다. 강치 잡이는 하시오카가 이미 1941년에 포기하고 있었다.(朴炳涉 2011a:20-28)

광복 후의 한국인의 독도 어업은 박병섭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광복이 되자 울릉도 및 본토의 많은 한국 어민들은 발동기선 등 5~24척으로 출어해 주로 미역을 채취했다. 이 외에는 전복, 소라 우뚝가사리 등도 채취했다. 어로 기간은 4~7월이며, 동굴에 돛자리 등을 깔고 생활했다. 그런 어민들의 실태를 일본 시마네현 관리들이 자세히 기록했다. 한편 시마네현 수산시험선은 독도 어장을 조사하고 어업에 중요한 붕(棚)을 발견해 신도퇴(新藤堆, 심홍택해산)라고 명명했다. 시마네현 관리의 보고서에 의하면 신도퇴에는 흑시 기대를 걸 수도 있겠지만, 주변 해역은 깊으니 회유성 물고기 외는 가망이 없다고 한다. 또한 해변 어업에 관해서는 독도는 작은 섬이니 전복·미역 등은 많은 어획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당시의 독도 어업을 잘 분석했다.(朴炳涉 2011b:30-35)

일본인의 독도 어업은 SCAPIN 677, 1033,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 지정 등에



의해 금지됐다. 게다가 한국은 1952년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그 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일본정부는 부당한 항의를 거듭하는 한편, 1953년에는 독도가 미군의 폭격 훈련 구역에서 해제되자 독도의 탈취를 시도했다. 6월에 영토 표지를 세우고, 어로 중인 한국인 어민에 퇴거를 명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정부 간에 독도 영유권 논쟁이 시작됐으며, 독도에서는 영토 표지의 공방전이나 총격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려고 관제 어업을 시도했다. 1954년 5월에 일본정부 및 시마네현은 오키도 어민들을 관선에 태우고 독도로 가서 어민들에게 어로를 시켰다. 그런데 어민들이 기대한 전복과 소라는 양이 적고, 일본인에게는 가치가 낮은 미역만이 많이 채취됐다고 한다.(朴炳涉 2011a: 31-33)

그 당시 독도 어장은 거의 매력이 없었으니, 독도 해역에 출어하는 일본 어선은 없었다. 그런데 시마네현은 평화선 밖으로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어업이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어선들이 독도 해역에서 마침 평화선을 어기고 많이 나포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島根県 2006:15) 이는 사실이 아니다. 후지이 겐지(藤井賢二)는 “다케시마 근해는 수심이 깊어 저인망(底引網) 어업의 좋은 어장이 아니며, 다케시마 근해에서 일본어선의 대량 나포가 있었다고 하는 언설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藤井賢二 2011:88)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도 “1965년까지 한국에 나포된 어선의 총계는 229척……(생략) 관건이지만 다케시마/독도 주변 해역에서 나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福原裕二 2009:72-75) 한편, 시마네현은 팸플릿 『포토시마네』 161호에서 평화선과 관련해 시마네현 어선 11척, 선원 114명이 마침 독도 근처에서 나포된 것처럼 썼는데, 이들이 나포당한 곳은 모리수 가즈오(森須和男)의 조사,(朴炳涉 2011b:26) 혹은 다케우치의 조사에 따르면,(竹内猛 2013:117) 모두 독도 해역과 무관한 곳이다. 독도 해역에 일본 어민이 출어하게 된 시기는 1970년경이며 오징어잡이, 붉은대게잡이의 어업 기술이 발달한 후였다. 시마네현이 그런 마땅치 않은 홍보를 하는 까닭은 일본인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평화선 내의 나포를 억지로 독도와 연결시켜 관심을 끌고, 아울러 마침 과거에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성하게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시마네현에 있어서 독도가 어업 면에서 얼마나 소중한 섬인가를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마네현의 이런 홍보는 한·일 우호에 장애가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朴炳涉 2011b:23-28)

한편, 일본에서 평화선은 ‘공해의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행위로 이해되고 있는데, 큰 원인은 일본의 “약탈 어업”, “해적 어범”에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합국은 일본 어업을 제한하는 SCAPIN 1033, 소위 맥아더라인을 설정했으나, 일본인 어업에 대해서는 ‘공해의 자유’의 원칙은 무너졌다. 또한 각국은 맥아더라인이 폐지된 후는 근해 어업의 자원 보전을 위해 평화선을 비롯해 소련은 브루가닌 라인, 중국은 화동(華東)라인 등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이런 근해 어업 관할권이 오늘날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발전한 것이다.(朴炳涉 2011b:28-41)

## 결론

2000년 이후 일본에서는 치열한 독도 논쟁 덕분에 질이 높은 연구가 많이 발표되어 여태까지의 통설이 수정되고, 유력한 새 학설이 탄생했다. 이 중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중요한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마쓰시마(독도) 도해면허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유력한 근거로 삼은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가와카미 겐조가 창출한 것이다. 도해면허의 존재를 호리 가즈오는 인정했지만, 쓰카모토 다카시는 이를 의문시했다. 또한 이케우치 사토시는 가와카미가 도해면허의 근거로 삼은 1650년대의 ‘로쥬 양해’라는 것은 무라카와 가문이 선행하고 있었던 독도 어업을 오야 가문과 조정한 결과 나온 것이며,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가문의 ‘조정’에 관해 박병섭은 무라카와 만이 독도 어업을 시작한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라카와가 오야를 독도 어업에 끌어들이기 위해 중개자를 움직였던 것이 ‘조정’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2) 마쓰시마(독도) 어업의 성격

가와카미 겐조는 울릉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후, 왜 오랫동안 독도 어업의 기

록이 없었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그 이유를 박병섭은 독도 어업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가 많아서 독도 어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독도에는 큰 배로 갈 수 없고, 식수나 땀감이 없기 때문에 생활은 물론 어획물의 가공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독도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은 없었다. 그러나 1650년대에 울릉도의 강치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시작했다. 그러나 강치 사냥은 여러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 할 수 없었다. 또한 전복은 울릉도에 풍부하니 아예 독도에서 딸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독도 어업은 결코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독도 어업은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야 가능했다. 따라서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후는 독도 단독의 어업은 있을 수 없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됐다.

### (3) 안용복 진술의 진위와 『숙종실록』의 신뢰성

안용복은 1693년에는 일본으로 피랍되고, 3년 후에는 스스로 일본으로 도해했다. 1696년에 귀국 후 안용복은 비변사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의 진술을 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의문시하고 있다. 먼저 그들은 ‘한국 측’은 안용복이 피랍됐을 때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정하는 에도막부의 서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데라사와 및 일본외무성 『10 포인트』 등은 안용복 진술을 기록한 관찬 역사서를 비난하고, 한국정부가 그런 역사서를 근거로 삼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박병섭은 『숙종실록』에 의하면 조선조정은 안용복이 진술한 서계 등의 말을 믿지 않았으며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을 결정했으니, 데라사와 등의 이해는 『숙종실록』의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숙종실록』은 ‘피랍사건’ 때에 안용복 진술의 진위를 잘 가리고 있었으니 신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일본외무성뿐만 아니라 많은 일본 연구자들이 의문시한 것은 안용복이 1696년에 울릉도·독도에서 일본인을 쫓아내고 오키도에 이르렀다는 진술이다. 시모조는 이 해 1월에 도해금지령이 내려졌으니, 일본인은 울릉도로 안 갔으며, 조선인과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렬은 도해금지령이 어민들에게 전달된 시기는 8월이니, 이를 모르는 일본 어민들이 봄에 울릉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케우치는 일본 어민들이 1696년에 도해한다는 것

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며, 또한 가령 일본 어민들이 도항하고 울릉도에서 안용복 등과 만났다면 무라카미가문서에 그럴만한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안용복은 우연히 오키도에 왔다고 오키도 관원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병섭도 이케우치 견해를 지지했지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과 만난 때가 1696년이 아니라 1695년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근거의 하나로 안용복의 독도에 대한 지식을 들었다. 안용복은 1693년에 피랍 도중에 배에서 본 섬(독도)의 이름이나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몰랐으며, 우산도는 울릉도 동북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1696년에는 무라카미가문서에 의하면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오키도 쪽으로 50리(200km) 떨어진 섬이 자산도이며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울릉도·자산도는 조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는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와 만나서 마쓰시마를 자세히 알게 된 결과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안용복이 1695년에 울릉도로 도해했다고 가정한다면 많은 일이 잘 설명된다.

#### (4) 에도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

1836년에 울릉도로 밀항한 하치에몬이 처형당하고, ‘텐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내려졌다. 이때의 재판 판결문에 하마다번 관리가 하치에몬에 “가까운 마쓰시마로 도항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항한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교사했다고 기록됐다. 이에 대해 쓰카모토는 이는 독도가 일본영토에 속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증거의 하나로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와카미, 다무라, 「일본정부견해 3」 및 「4」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케우치는 하치에몬이 문초를 받았을 때에 하마다번 관리가 교사한 대로 변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것은 그런 교사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며, 에도막부는 쓰시마번에 대한 문의를 통해 마쓰시마도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섭은 당시의 막부의 마쓰시마에 대한 인식을 직접 나타내는 자료를 밝혔다. 오사카마치부교가 작성한 그림지도 「다케시마 방각도」 및 이를 바탕으로 평정소 혹은 지사부교가 작성한 그림지도 <그림 1>이다. 이들 지도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색칠돼 있으니, 두 섬이 조선 영토

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평정소는 로주를 책임자로 하는 막부의 최고 사법 기관이다. 이처럼 에도막부의 핵심 기관은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보고 있었다.

##### (5) 석도와 독도

시모조 마사오는 1900년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면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석도의 비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모조는 석도의 비정에 대해 자기 견해를 두 번이나 바꾸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수산지』 부속 지도를 인용해, 서항도(鼠項島, 관음도)의 일본어 음독 ‘소코토(ソコウトウ)’가 石島의 한국어 음독 ‘석도’와 흡사하다는 이유로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일본해군 수로부의 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항도는 일본에서 ‘소코토’가 아니라 ‘소모쿠소무(ソモクソム)’라고 불렸으며, 이는 ‘섬목’섬, 즉 도항(島項)=관음도의 일본어 표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모조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한국인이 1900년 이전에 독도를 활용한 기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석도가 현지의 용어를 고려한 독도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희가 전라도 어민이 1895년경부터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하고 독도를 돌섬이라고 불렀다는 새 자료 『민국일보』(1962.3.19)를 제시하자, 이케우치는 그 자료가 “석도와 독도가 일치하는 가능성에 이어지기는 한다.”라고 견해를 수정했다.

이처럼 석도는 독도 외의 섬으로 비정할 수 없으니, 데라사와 등은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비슷한 의문을 이케우치, 쓰카모토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a) 우산도는 관원 및 울릉도 주민들이 탐색에 실패한 결과, 존재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됐으니 칙령 41호에 쓸 수 없었다. (b) 울릉도 어민들은 표류나 어업을 통해 독섬(돌섬)을 알게 됐다. (c) 그 독섬이 칙령41호에 한자로 石島로 표기됐다. (d) 그러나 일반적으로 石島

를 독섬이라고 읽을 수 없으니, 표기가 独島로 변했던 것이다.

#### (6) 평화선에 대한 오해

1951년에 한국은 평화선을 선포해 독도를 그 안에 넣었다. 시마네현은 평화선 밖으로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어업이 돌변했다고 주장하고, 일본 어선들이 독도 주변에서 마침 평화선을 어기고 많이 나포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병섭의 연구에 의하면 시마네현 어민들의 강치 잡이나 전복 따기 등의 어업은 평화선을 선포하는 약 10년 전에 끝났으며, 광복 후는 SCAPIN 1033, 미군의 폭격 훈령 구역 지정 등에 의해 일본인의 독도 어업이 금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시마네현 어민의 어업이 평화선 밖으로 돌변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실은 독도 주변의 바다는 깊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매력이 없는 해역이며, 독도 주변에 출어하는 일본 어선은 거의 없었다. 물론 평화선을 어기고 나포된 어선은 독도 근처에는 한 척도 없었다. 시마네현이 평화선을 넘어 나포됐다고 말하는 시마네현 어선 11척이 실제로 나포당한 곳은 모리수 가즈오, 다케우치 다케시의 연구에 따르면 모두 독도 해역과 무관한 곳이다. 이처럼 시마네현이 그런 마땅치 않는 홍보를 하는 까닭은 일본인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평화선 내의 나포를 독도와 연결시킴으로서 관심을 끌고, 아울러 마침 과거에 시마네현 어민이 독도 주변에서 성하게 어업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꾸미고, 시마네현에 있어서 독도가 어업 면에서 얼마나 소중한 섬인가를 호소하려는데 있다고 박병섭은 보았다. 시마네현의 이런 홍보는 한·일 우호에 장애가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에서 평화선은 ‘공해의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행위로 이해되고 있는데, 큰 원인은 박병섭에 따르면 일본의 “약탈 어업”, “해적 어법”에 있다. 이를 경계해 연합국은 일본인 어업을 제한하는 SCAPIN 1033, 소위 맥아더라인을 설정했으나, 일본인 어업에 대해서는 ‘공해의 자유’의 원칙은 무너졌다. 맥아더라인이 폐지된 후는 소련이 브루가닌 라인, 중국이 화동라인 등을 선포했는데, 이런 근해 어업 관할권이 오늘날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발전됐다.

#### (7) 앞으로의 과제

최대의 과제는 1900년 칙령41호에 기술된 석도가 독도임을 직접 밝히는 자료

의 발굴이다. 석도는 독도 외에 비정할만한 섬이 없다는 것은 많은 일본인 연구자도 이해하고 있지만, 시모조 마사오 같은 억지 주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확실한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 과제는 한·일간에서 견해차가 심한 안용복 진술의 진위문제다. 역사학적으로 안용복의 언동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에서는 안용복의 진술을 『숙종실록』의 신뢰성에 연결시켜, 나아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도 의문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진위문제의 규명은 중요하다.

## ■ 참고문헌

- 김수희(2011) 「‘죽도의 날’ 제정 이후 일본의 독도 연구 동향」 『독도연구』10호.
- 오상학(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18-1.
- 한국정부(1959) 1월 7일자 「1956년 9월 20일자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반박하는 대한민국정부의 견해」
- 한국정부(1954) 9월 25일자 「독도(죽도) 영유에 관한 1954년 2월 10일자 아2 제50호 일본 외무성의 각서로서 일본정부가 취한 견해를 반박하는 대한민국정부의 견해」
- 下條正男(2013a) 「実事求是 第32回 ハンギョレ新聞電子版の外務省の固有の領土論批判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島根県
- \_\_\_\_\_ (2013b) 「歴史資料から見た竹島問題」 『東亜』3月号
- \_\_\_\_\_ (2008) 「独島呼称考」 『人文·自然·人間科学研究』19号
- \_\_\_\_\_ (2007a)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条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会
- \_\_\_\_\_ (2007b) 「日本の領土「竹島」の歴史を改竄せし者たちよ」 『諸君』9月号
- \_\_\_\_\_ (2007c) 「“事実であるかどうかは問題ではない”と言い切った韓国「独島本部」」 『正論』10月号
- \_\_\_\_\_ (2007d) 『発信 竹島』、山陰中央新報社
- \_\_\_\_\_ (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 \_\_\_\_\_ (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
- \_\_\_\_\_ (1998) 「竹島論争の問題点」 『現代코리아』7·8月号
- \_\_\_\_\_ (1997) 「続·竹島問題考(下)」 『現代코리아』6月号
- \_\_\_\_\_ (1996) 「竹島問題考」 『現代코리아』5月号
- 竹内猛(2013)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後編、私家版
- \_\_\_\_\_ (2011) 「「竹島外一島」の解釈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郷土石見』87号

- \_\_\_\_\_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編、私家版
- 塚本孝(2013) 「元禄竹島一件をめぐる一付 明治十年太政官指令一」『島嶼研究ジャーナル』2(2)
- \_\_\_\_\_ (2011a) 「韓国の保護・併合と日韓の領土認識」『東アジア近代史』14号
- \_\_\_\_\_ (2011b)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第3巻、国立国会図書館
- \_\_\_\_\_ (2000)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東アジア近代史』3号
- \_\_\_\_\_ (1996)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第2版、国立国会図書館
- \_\_\_\_\_ (1994)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国立国会図書館
- \_\_\_\_\_ (1984) 「竹島関係 旧島取藩文書および絵図」『レファレンス』35(4・5)
- 内藤正中(2013) 「竹島一件と安龍福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6・37号
- \_\_\_\_\_ (2011) 「一九〇五年の竹島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4号
- \_\_\_\_\_ (2008) 『竹島＝独島問題入門』、新幹社
- \_\_\_\_\_ (2005) 「隠岐の安龍福」『北東アジア文化研究』22号
- \_\_\_\_\_ (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多賀書店
- 朴炳涉(2013) 「日露海戦と竹島＝独島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6・37号
- \_\_\_\_\_ (2012)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 \_\_\_\_\_ (2011a)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1)」『北東アジア文化研究』33号
- \_\_\_\_\_ (2011b)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北東アジア文化研究』34号
- \_\_\_\_\_ (2010a)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1)」『北東アジア文化研究』31号
- \_\_\_\_\_ (2010b) 「明治時代の鬱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北東アジア文化研究』32号
- \_\_\_\_\_ (2010c) 「安龍福事件の再検証」啓明大学校/島根県立大学 第3回 独島/竹島研究会論文、<http://www.kr-jp.net/ronbun/park/park-1007j.pdf>
- \_\_\_\_\_ (2009a)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2)」『獨島研究』7号
- \_\_\_\_\_ (2009b) 「安龍福事件と島取藩」『北東アジア文化研究』29号
- \_\_\_\_\_ (2009c) 『韓末期の鬱陵島・独島漁業—独島領有権の観点から—』、韓國海洋水産開發院
- \_\_\_\_\_ (2008a) 「明治政府の竹島＝独島認識」『北東アジア文化研究』28号
- \_\_\_\_\_ (2008b)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獨島研究』4号
- \_\_\_\_\_ (2007) 『安龍福事件に対する検証』、韓國海洋水産開發院
- 池内敏(2012a) 「竹島/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再論」『テキストの解釈学』、水声社
- \_\_\_\_\_ (2012b) 『竹島問題とは何か』、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11)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歴史評論』
- \_\_\_\_\_ (2010) 「竹島/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ノート」『HERSETEC』4(2)
- \_\_\_\_\_ (2009a) 「安龍福英雄伝説の形成・ノート」『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史学55)
- \_\_\_\_\_ (2009b) 「江戸時代における竹島および松島の認識について」『獨島研究』6号
- \_\_\_\_\_ (2008) 「安龍福と島取藩」『鳥取地域史研究』
- \_\_\_\_\_ (2007a) 「近世日本の西北限界」『史林』90(1)
- \_\_\_\_\_ (2007b) 「隠岐・村上家文書と安龍福事件」『鳥取地域史研究』9号
- \_\_\_\_\_ (2006) 『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05) 「前近代竹島の歴史学的研究序説」『青丘学術論集』25号
- \_\_\_\_\_ (2001a) 「17~19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歴史学研究』756号
- \_\_\_\_\_ (2001b) 「竹島一件の再検討」『名古屋大学文学部研究論集』47号
- \_\_\_\_\_ (1999) 「竹島渡海と鳥取藩」『鳥取地域史研究』1号
- 金学俊 著、李喜羅·小西直子 訳(2012) 『独島研究』、論創社
- 藤井賢二(2011) 「島根県の漁業者と日韓漁業紛争」『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島根県
- 杉原隆(2010) 「浅井村土族大屋兼助他一名の「松島開拓願」について」『郷土石見』83号
- 福原裕二(2009) 「竹島」関連言説の検討」『総合政策論叢』17号、島根県立大学
- 寺沢元一(2009)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歴史と地理』628号
- 日本外務省(2009) 『竹島問題を知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 宋炳基 著、朴炳涉 訳(2009) 『鬱陵島・独島(竹島)歴史研究』、新幹社
- 内藤正中·金柄烈(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岩波書店
- 内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独島論争』、新幹社
- 大西俊輝(2007) 『続 日本海と竹島』、東洋出版
- \_\_\_\_\_ (2003) 『日本海と竹島』、東洋出版
- 船杉力修(2007)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II)」『「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島根県
- 島根県(2006) 『フォトしまね』161号、島根県
- \_\_\_\_\_ (1967) 『新修島根県史』史料編(近世下)、島根県
- 半月城(2006) 「竹島=独島の知られざる歴史」『『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コモンズ
- 玄大松(2006)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ミネルヴェテ書房
- 金柄烈(2006) 『明治38年 竹島編入小史』、インター出版
- 崔文衡(2005) 「日露戦争と日本の独島(竹島)奪取」『環』23号
- 森須和男(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浜田市教育委員会
- \_\_\_\_\_ (1996) 「竹島一件考「今津屋八右衛門」」『亀山』
- 田村清三郎(1996) 『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
- 田川孝三(1989)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東洋文庫書報』20号
- \_\_\_\_\_ (1953) 「于山島について」『竹島資料』10、島根県図書館所蔵
- 堀和生(1987)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号
- 梶村秀樹(1978) 「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朝鮮研究』182号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 日本政府(1962) 7月13日付 「竹島に関する1959年1月7日付け大韓民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見解」
- 日本政府(1956) 9月20日付 「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け大韓民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見解」
- 速水保孝(1953) 『竹島漁業の変遷』、外務省アジア局

## ■ 논문초록

키워드	독도 어업, 안용복, 『인슈시청합기』, 태정관, 칙령 41호, 러일전쟁 Fishery off Dokdo, Ahn Yongbok, <i>Inshu shicho goki</i> , Dajokan, Imperial Ordinance No.41, Russo-Japanese War
<p><b>Japanese Academics' Dokdo-Related History Study after 2000</b></p> <p>Park, Byoung Sup</p>	
<p>After Shimane Prefecture enacted the 'Takeshima Day' in year 2005,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Dokdo increased. Many researchers with different opinions have had severe discussions, and there have been many notable papers. This paper introduces those discussions. Chapter 1, it has been proved in Ikeuchi Satoshi's research that 'Permission for passage to Matsushima', a basis for Japan's claim over Dokdo, wasn't issued. This was a device to control fishermen businesses.</p> <p>Chapter 2, many Japanese researchers regard Ahn Yongbok's statement in <i>Sukjong shillok</i> as false and questions the validity of <i>Sukjong shillok</i>. However, they overlook an important article in <i>Sukjong shillok</i> regarding Ahn Yongbok's kidnapping. Also, regarding Ahn Yongbok's visit to Japan, a new theory has been suggested. Chapter 3, Ikeuchi's research proved that Japan's northwest limit mentioned in <i>Inshu shicho goki</i> was Onki-no-kuni. Meanwhile, <i>Tongkuk munheon bigo</i> revision claim that <i>Simojo Masao</i> suggested, was refuted by Park Byungsup.</p> <p>Chapter 4, During 'Tenpo takeshima ikken' Hachiemon smuggled goods in Ulleungdo on a pretext of going to Dokdo, and during this cas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Edo government perceived Ulleungdo and Dokdo as Chosun territories, and drew a map.</p> <p>Chapter 5, the dispute over Daijokan's order that 'Takeshima and another island' is unrelated with Japan, is almost settled. Chapter 6, Seokdo, mentioned in the Imperial Ordinance number 41, is known to be Dokdo in many sources. Chapter 7, Japan integrated Dokdo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perspective on Dokdo at that time, has been revealed. Chapter 8, Shimane Prefecture's unfair publicizing strategies have been revealed regarding Korea's Peace Line.</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 박병섭      (한자) : 朴炳涉 일문제목 : 2000年以降、独島関連の日本学会の歴史学研究 소속 : 일본 독도=다케시마 연구 넷 전화 : +81-47-373-8564 E-mail : half-moon@biglobe.jp
투고 및 심사 일시	투고마감일 : 2013.10.30.      심사일 : 2013.11.10.      심사완료일 : 2013.12.15.